

문화재	NO. 176 - 보물 177 서울 사직단 정문	촬영	녹음	편집	수정	시사	완성
시 간	2분						

* 굵은 글씨 수정 부분, Shot Number에도 표시,

구 분	VIDEO	Shot Number	AUDIO
1. 타이틀	보물 제177호 서울 사직단 정문 (서울 社稷壇 正門)		최종수정완본 9월 1일 : 분류(5-2)
2. 개요	- 정면에서 본 사직단 정문	1	서울 사직단 정문은 사직단의 바깥담에 연결된 신문으로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다.
	- 사직단 전경	2	사직단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제사지내던 제단으로서 태조 3년 1394년에 지었으며
	- 사직단을 둘러싼 주위 토벽과 정문	3(수정)	이때 사직단에 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위에 담장을 쌓고 그 입구에 정문을 세웠다.
	- 정문	4	사직단 정문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고 담만 남아 있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복원된 것으로 추정되며
	- 원거리에서 본 정문, 도로와 함께	5	1962년에는 서울시 도시 계획에 따라 원래의 자리에서 14m 뒤쪽의 현 위치로 옮겨졌다.
- 정문 전경	6(수정)	그 후 사직단 정문은 1970년대에 사직공원 일대의 조경사업으로 또 한차례 새 단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.	

구 분	VIDEO	Shot Number	AUDIO
3. 특징	- 정면, 측면에서 본 모습	7	사직단 정문은 외별대 기단 위에 세운 정면 세 칸, 측면 두 칸 규모의 단층건물로 익공계 형식의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.
	- 지붕	8(수정)	
	- 정면에서 본 모습 - 양 측면 벽	9 10	정면 세 칸에는 판비를 달아 통로를 만들고, 양 측면에는 벽을 쳐서 이었다.
	- 정문 전경	11	사직단 정문은 전체적으로 소박한 기법과 튼튼한 짜임새를 갖추어 넉넉한 느낌을 주는 건축 문화재이다.